

# 『지옥변』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미(美)\*

- 영주와 화가와의 대결과정을 중심으로 -

임만호\*\*  
mhlim@gachon.ac.kr

## <目次>

- |                    |                  |
|--------------------|------------------|
| 1. 서론              | 4. 파괴에서 미(美)의 탄생 |
| 2. 영주와 화가          | 5. 결론            |
| 3. 지키려는 자와 넘어서려는 자 |                  |

主題語: 그로테스크한 미(grotesque beauty). 狂氣(madness). 良秀(yoshihide). 領主(lord) 地獄變(Jigokhen)

## 1. 서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이하 아쿠타가와라고 함)는 1918년 2월, 마이니치신문사(毎日新聞社)의 사우(社友)로 영입되어 안정된 전업 작가생활을 하는 가운데, 첫 작품으로 『지옥변(地獄變)』(1918, 5)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마사무네 하쿠쵸(正宗白鳥)가 ‘내가 읽은 범위 내에서 이 한 편을 가지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최고의 걸작으로서 추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중략)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수십 년간의 수업이 이 한 편에 결정되어 있다!’<sup>1)</sup>고 언급하고 있듯이, 아쿠타가와와의 모든 창작물 중 가장 예술지상적, 혹은 미(美)적 세계를 잘 구현한 작품은 없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미적 세계란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화가 요시히데(良秀)의 작품 완성하는 과정과 동시에 그의 성격에서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가 ‘광기에 가까운 예술지상주의’<sup>2)</sup>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요시히데라고 하는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예술적 미는 작품에 나타난 조화와 질서, 혹은 선(善)과 이상, 영원성에

\* 본 논문은 2013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GCU-2014-R027)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1) 中島隆之 編(1975) 正宗白鳥『文芸読本 芥川龍之介』,河出書房, pp.48-49

2) 吉田精一(1942)『芥川龍之介』三省堂, p.152

의해 완결된 미적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화와 무질서 혹은 악(惡)과 속세, 순간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로테스크<sup>3)</sup>한 미, 즉 예술상의 괴기미에서 그 완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술과 상반되면서 분리된 새로운 미에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미는 일상 세계에서 보게 되는 화가인 요시히데의 파괴와 혼돈을 추구하는 삶과 영주의 가치와 안정을 바라는 삶의 대비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주와 요시히데의 성격을 규명한 다음, 이들 두 사람 간의 대결을 통해서 요시히데의 기존의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파괴된 과정 속에 나타난 미적 아름다움이 결국 지옥변이란 작품으로 승화하는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영주와 화가

작품의 도입부분에서는 우선 영주와 화가 요시히데에 관련한 성격묘사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지옥변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면에 숨겨있는 권력과 예술가라는 두 사람 간의 대결구도는 물론 나아가 지옥변의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요시히데에 관한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보기에는 그저 작은 키에 빼만 앙상한 성질 사나워 보이는 남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성품이 극히 비열한데다 웬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입술이 유난히 붉은 것도 더할 나위 없이 비위에 거슬리는 너무나 동물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자이었습시다.<sup>4)</sup>

見た所は唯、背の低い、骨と皮ばかりに瘦せた、意地の悪さうな老人でございました。(中略) 人からは至つて卑しい方で、何故か年よりらしくもなく、唇の目立つて赤いのが、その上に又氣味の悪い、如何にも獣めいた心もちを起きさせたものでございます。 (全集2巻 : 184)

그 성격을 보자면 구두쇠에 탐욕스럽고 엄치없고 게으르다는 것 아니 무엇보다도 지극히 오만불손하여 늘 자기를 이 나라 제일의 화공으로 자처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중략) 세상관습이나 관례

3) ‘그로테스크’는 ‘기괴하고 끔찍스러운, 엽기적인 것 혹은 예술상에 나타난 괴이 또는 과장되고 황당무계한 괴기미’(이희승(200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487)를 의미한다.

4) 본 논문에서 취급한 작품과 문장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전집』(『芥川龍之介全集』)(1977) 岩波書店, 이후 전집으로 표기)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표기는 권수 및 쪽수를 표기한다.

에 이르기까지 죄다 우습게 여기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같았습니다.

その癖と申しますのは、吝嗇で、慳貪で、恥知らずで、怠けもので、強欲で—いや、その中でも取分け甚だしいのは、横柄で高慢で、何時も本朝第一の絵師と申す事を、鼻の先へぶら下げている事でございます。(中略)世間の習慣とか慣例とか申すやうなものまで、すべて莫迦に致さずには置かないのでございます。(全集2巻：189)

요시히데는 외모나 성격적인 면에서 보통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그의 외모는 ‘동물적 느낌’이라고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여 살 수 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그의 성격을 보면,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염치를 모르고 게으르며, 게다가 오만불손’하기까지 하여 세상관습이나 인간적 유대 관계를 무시하는, 바꾸어 말해서 기존의 법과 규범을 유지하기 보다는 파괴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쿠지 히로시(菊地弘)는 ‘요시히데는 세상 일반상식이나 도덕에서 보면 기행이형(奇行異形) 인간으로 보일 것이지만, 이러한 괴이한 모습을 가진 자야 말로 비길 데 없는 예술미를 창조해 내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그의 외모나 성격은 궁극적으로 진, 선, 미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보통 예술가나 사람들과는 차별성<sup>6)</sup>을 두고 있다. 아쿠타가와 스스로도 ‘예술가는 비범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는 할지도 모른다. (중략) 물론 이것은 나에게도 할지 모른다는 의미이다’(『예술 그 외(芸術その他, 全集3巻: 267).)』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완성, 궁극적으로 미의 완성을 위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에 얽매여서는 기존의 예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파괴 속에서 새로운 창조와 미적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요시히데의 외모나 선(善)보다는 악(惡)을 추종하고 사회질서나 윤리를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성격묘사에서 나타난 기괴함 혹은 광기야말로 그의 예술적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하여 영주에 관한 성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언급한, 네거티브한 요시히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5) 菊地弘(1982)『芥川龍之介 - 意識と方法 -』明治書院, p.89

6) 요시무라 시게루(吉村綱·中谷克己 編)는『芥川文芸の世界』에서 ‘요시히데는 화자의 악의에 가득 찬 말에 의해 그 인간적 존재를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정이 전적으로 화자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들은 화자의 판단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은 요시히데의 진정한 존재 의의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吉村綱, 中谷克己 編(1977)『『地獄変』-意識的芸術活動の定立、あるいは日常からの飛翔』『芥川文芸の世界』明治書院, p.101

호리카와(堀川)성 영주님 같은 분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분이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중략) 아래로 못 백성들의 일까지 두루 헤아리시는 이를 테면 온천하가 더불어 잘 되지는 식의 넓은 도량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堀川の大殿様のやうな方は、これまでは固より、後の世にも恐らく二人とはいらつしやいますまい。(中略)それよりはもつと下々の事まで御考へになる。云わば天下と共に楽しむとでも申しさうな、大腹中の御器量がございました。(全集2卷：182-183)

이조대궁(二条大宮)에 횡행한다는 온갖 잡귀들을 만나더라도 별달리 탈이 나시지도 않았습시다. (중략) 당시 성안의 못 백성들은 영주님이시라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마치 부처님의 화신이라도 되듯 공경하여 마지않던 것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二條大宮の百鬼夜行に御遇ひなつても、格別御障りがなかつたでせう。(中略)その頃洛中の老若男女が、大殿様と申しますと、まるで權者の再来のやうに尊み合ひましたも、決して無理ではございません。(全集2卷：183)

여기에 서술된 영주의 모습은 말 그대로 성 안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백성을 헤아리는 넓은 관용을 가지고 사회의 윤리나 관습을 헤치는 잡귀 등을 퇴치하며, 사회 전체를 서로 조화롭게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진(眞)과 선(善)을 갖춘 신적인 인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도덕이나 규범을 관장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와 이상을 추구하는 대표적 인물로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는 기존의 사회를 보호 및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나 질서를 지키는 항상성 가운데, 미적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규범이나 관습을 깨뜨리는 요시히데에게 대항하는, 이를테면 기존의 질서를 영원히 지키려는 영주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요시히데의 대결을 통해서 작품 전체에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지옥변을 그리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 3. 지키려는 자와 넘어서려는 자

이처럼 영주와 요시히데로 대표되는 권력가와 화기는 결국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로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옥변을 그리는 데 있어 예술적 완성을 두고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요시히데는 자신의 예술적 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젠가 영주께서 농담 삼아 ‘그대에게는 추한 것이 좋게 보이는가?’ 라 물으신 적이 있는데, 그 남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불그레한 입술로 기분 나쁘게 히죽거리며 ‘그렇사옵니다. 다른 화공들은 추한 것 안의 아름다움을 알 턱이 없습지요’라 답하고 있습니다.

何時ぞや大殿様が御冗談に、‘その方は兎角醜いものが好きと見える’と仰有つた時も、あの年に似ず赤い唇でにやりと気味悪く笑ひながら、‘さやうでござりまする。かいがないでの絵師には総じて醜いものの美しさなどと申す事は、わからう筈がございませぬ’と、横柄に御答へ申し上げました。  
(全集 2 卷 : 190)

영주의 ‘추한 것이 좋게 보이는가?’ 질문에 요시히데는 ‘추한 것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답한다. 또한 요시히데는 지옥변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원래 본 것이 아니면 그리지를 못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요시히데의 화가로서의 인식과 속성은 다양한 기행과 파괴로 연결되고, 마침내 영주로 하여금 자신의 딸을 태워 죽이는 생지옥을 연출하게 하는 광기에 가까운 예술관으로 승화된다. 이시와리 도루(石割透)는 ‘외관상 평온하고, 겉치레로 일관하는 일상 세계의 이면에 숨어있는 일체의 허식을 벗겨낸 추악한 인간의 본질과 업을 꿰뚫어 보고,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옥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가로서 요시히데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실로 그와 같은 세계관이었음이 틀림없다’<sup>7)</sup>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요시히데의 지옥을 보지 않고서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는 말은, 이시와리가 주장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옥’이 아닌 기존의 합리적인 질서나 관념을 해체하고 전통적 미학과 도덕을 파괴하면서 나타나는 긴장감, 섬뜩함, 이질감인 그로테스크 속에서 순간적 아름다움인 예술의 완성을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영주와 화가의 대결 양상은 요시히데의 딸을 중심으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작품 전체에서 ‘아름답다(美しい)’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작품 화자인 ‘내’가 어느 날 밤 혼자 복도를 걷고 있던 중 원숭이에 이끌려 우연히 목격한, 누군가에 의해 겁탈 당하려고 한 요시히데의 딸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인 냥 생기있게 보였습니다. 눈은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뺨도 빨강개 달아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흐트러진 옷차림은 어느 때의 풋풋함과 달리 요염함까지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그 연약하고 매사에 조신하기 이를 데 없던 요시히데

7) 石割透(1992)『<芥川>とよばれた藝術家 - 中期作品の世界 -』有精堂, pp.123-124

의 딸이 맞는 것일까요. - 저는 미담이에 몸을 기대고 그 달빛 속의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황망히 떨어져가는 또 하나의 발자국소리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눈짓으로 물어보았습니다.

その晩のあの女は、まるで人間が違つたやうに、生き々と私の眼に映りました。眼は大きくかがやいて居ります。頬も赤く燃えて居りましたらう。そこへしどけなく乱れた袴や桂が、何時もの幼さとは打つて變つた艶かしささへも添へてをります。これが實際あの弱々しい、何事にも控へ目勝な良秀の娘でございませうか。- 私は遣り戸に身を支へて、この月明かりの中にいる美しい娘の姿を眺めながら、慌しく遠のいて行くもう一人の足音を、指させるものやうに指さして、誰ですと静に眼で尋ねました。(全集2巻:209)

아버지와 달리 요시히데의 딸<sup>8)</sup>은 마음씨 착하고, 불임성이 많은, 어른스럽게 배려심 있는 영리한데다가 매사에 눈치도 빨라 누구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요시히데의 딸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영주와 그를 섬기는 시녀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성립된 것으로 각기 신분과 관습에 따라 균형과 절도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누군가에 의해 겁탈당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러한 균형과 절도가 깨어진 순간이며, 그러한 순간 속에 지금까지 요시히데의 딸은 사라지고 요염함과 생기가 있는 한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태어나고 있음<sup>9)</sup>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화자가 말한 누가 겁탈하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 - ‘더 이상 캐물으면 안 될 것 같은 꺼림칙한 기분’으로 - 에 요시히데의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과연 누가 요시히데의 딸을 겁탈하였는가에 관해서 두 사람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영주 아니면 요시히데이다. 물론 영주의 경우 요시히데의 딸의 미모에 빠져 요시히데의 몇 번이나 해직해 달라는 것을 물리치고 성안의 시녀로 두고 있었다. 더욱이 영주가 그의 딸에 마음에

8) 미요시 유키오(三好行雄)는 ‘딸은 요시히데에게 있어 그의 <단지 하나뿐인 인간다운 애정>을 나타내는 장소이며, 그의 예술과 대립하는 유일한 인생이었다. 유일하므로 인생의 모든 것이기도 하다. 요시히데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잔재로 버림으로서, 예술창조의 과정을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을 확보하고 예술가의 광영을 잘 존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三好行雄(1962.8)『『地獄変』について-芥川竜之介のアプローチ-Ⅱ』『国語と国文学』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p.11

9) 화자인 ‘내’가 요시히데의 딸에게 누가 그랬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략) 그녀는 역시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시에 긴 속눈썹 끝에 눈물이 가득 고이며 앞에 보다 더욱 굳게 입술을 깨무는 것입니다’

‘如何にも亦、口悔しさうなのでございます。(中略)娘はやはり首を振つたばかりで、何とも返事を致しません。いや、それと同時に長い睫の先へ、涙を一ぱいためながら、前よりも堅く唇を噛みしめているのでございます’(全集2:209-210)에서와 같이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고 있다는 소문<sup>10)</sup>마저 돌고 있는 가운데, 영주가 요시히데의 딸을 겁탈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주가 요시히데의 딸을 범하려고 한 것은, 성의 영주라면 성안의 어떤 여자든 취할 수 있는 신분이다. 만일 영주가 요시히데의 딸을 거두어 준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무엇이든 아쉬울 것 없이 지낼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당시 사회의 관례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질서와 관습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영주가 요시히데의 딸을 범하려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도 아니며, 사회적 규범을 깨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요시히데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로는 영주의 명을 받아 초가을부터 지옥변을 그려오던 요시히데가 겨울이 다 가도록 그림이 자신 뜻대로 안되자 혼자 눈물을 흘린다면, 아니면 급기야 여태껏 그려온 그림마저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요시히데는 지옥변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자를 쇠사슬로 묶거나, 부영이의 공격을 받게 하는 등의 이상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악몽에서 도깨비 모습을 보거나 해서 자신이 직접 본 지옥을 병풍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옥적인 모습은 모두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모습이다. 그런데 요시히데는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옥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보다 반사회적인 모습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 지옥변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요시히데가 생각하는 보다 지옥적인 모습,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보다 반인륜적이고,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파괴하는, 보다 악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굳이 말한다면 바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딸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도 다름 아닌 최고 권력자인 영주가 살고 있는 성 안에서, 보통 사람들부터 경원시하고 터부시되는 사회 법규를 지켜야 할 상징적 존재인 성 안에서의 요시히데의 딸에 대한 행동은 분명히 영주에게 도전이며, 나아가 기존 사회를 유지하고 윤리적, 관습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이와 비슷한 예로 ‘요시히데가 이 같이 마치 미치광이처럼 병풍 화에 빠져 있을 동안, 또 한 쪽에선 그 딸이 웬지 점점 침울해져 저희들에게까지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중략) 나중에는 영주님이 뜻대로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자 그 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잇는 듯 깨끗이 그 딸에 대한 소문은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良秀がこのように、まるで正気の間人とは思はれない程夢中になつて、屏風の絵を描いて居ります中に、又一方ではあの娘が、何故かだんだん氣鬱になつて、私どもにさへ涙を堪へている容子が、眼に立つて参りました。(略)中頃から、なにあれは大殿様が御意に従はせようとしていらつしゃるのだと云ふ評判が立ち始めて、夫からは誰も忘れた様に、ぼつたりあの娘の噂をしなくなつて了ひました’ (全集2卷 : 207)

따라서 요시히데는 영주로 대표되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하여, 결국 화가인 예술가로서 넘어서려고 했으며, 그러한 파괴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단절된 배덕(背德)하고 비인간적인 요시히데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딸을 태워 죽이는 상황을 영주에게 연출하게 함으로서 예술적 완성인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 4. 파괴에서 미(美)의 탄생

더욱이 이러한 질서와 조화 대 무질서와 파괴와의 대결, 다시 말해서 예술의 궁극적인 미를 사이에 두고 영주와 요시히데와의 대결<sup>11)</sup>은 마침내 요시히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두고 펼쳐지고 있다.

아아! 저는 그 때 그 수레에 탄 딸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릴 용기는 도저히 없습니다. 연기에 숨이 막혀 위로 치켜든 그 얼굴의 창백함, 불길을 털어내고자 흐트러진 긴 머리칼 그리고는 또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변해버린 연분홍색 당의의 아름다움 - 어찌면 그토록 처참한 광경일까요?

ああ、私はその時、その車にどんな娘の姿を眺めたか、それを詳しく申し上げる勇氣は、到底あらうとも思はれません。あの煙に咽んで仰向けた顔の白さ、焰を掃つてふり乱れた髪の長さ、それから又見る間に火と變つて行く、桜の唐衣の美しさ、一何と云ふ惨たらしい景色でございましたらう。

(全集2卷：220)

11) 요시히데와 영주와의 대결은 다음과 같은 요시히데와 영주와의 인용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저는 병풍 정중앙에 수레 한 채가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그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시히데는 이리 말하고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영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시히데는 그림에 관한 말만 하면 미치광이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 때의 눈초리에는 확실히 그와 같은 서슬이 퍼런 데가 있었습니다.”(중략) ‘오호, 그래. 만사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 주마’ (중략) 실제로 또 영주님 모습도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고 눈썹 언저리는 파르르 번개가 치는 것 마냥 무언가가 번뜩거렸고, 마치 요시히데의 미친 광대놀음에 옴은 것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私は屏風の唯中に、檳榔毛の車が一輛空から落ちつて來る所を描かうと思つて居ります” 良秀はかう云つて、始めて鋭く大殿様の御顔を眺めました。あの男は画の事を云ふと、氣違ひ同様になるとは聞いて居りましたが、その時の眼のくばりには確にさやうな恐ろしさがあつたやうでございます。”(中略)“おお、萬事その方が申す通りに致して遣はさう”(中略) 實際又大殿様の御容子も、御口の端には白く泡がたまつて居りますし、御眉のあたりにはびくびくと電が走つて居りますし、まるで良秀のもの狂ひに御染みなすつたのかと思ふ程、唯ならなかつたのでございます”(全集2卷：213-214)



영주는 요시히데의 부탁으로 평소 자신이 타던 수레 안에 요시히데의 딸을 묶어 두고 태우는, 이른바 지옥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이 슈세이(笠井秋生)는 ‘요시히데의 예술은 가장 사랑한 딸을 태워 죽인다고 하는 매우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행위에서 완성된 것이다’<sup>12)</sup>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불길 속에는 요시히데의 최후의 인간적 윤리적인 면을 상징하는 딸<sup>13)</sup>은 보통 사람으로, 영주가 타는 수레는 견고한 성을 상징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습과 규범, 질서와 조화가 불을 통해서 점차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요시히데와 영주는 이러한 지옥적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대결에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 불기둥을 눈앞에 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는 요시히데는 - 어쩌면 그토록 기이할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지옥고에 시달리던 것 같은 요시히데는 이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광채를, 거의 황홀한 범열의 광채를 주름투성이인 만면에 띄우며 영주님 앞인 것도 잊었는지 팔짱을 딱하니 긴 채 우두커니 서 있지 않겠습니까?

その火の柱を前にして、凝り固まったやうに立っている良秀は、一何と云ふ不思議な事でございませう。あのさつきまで地獄の責苦に悩んでいたような良秀は、今は云ひよのない輝きを、さながら恍惚とした法悦の輝きを、皺だらけな満面に浮かべながら、大殿様の御前も忘れたのか、両腕をしつかり胸に組んで、佇んでいるのではございせんか。 (全集2巻:222)

그러나 그 중 유독 한 분 대청에 앉은 영주님만은 마치 딴 분으로 여겨질 정도로 새파랗게 질려서 입언저리에 거품을 물며 보라색 바지 무릎팍을 양손으로 꼭 잡으시고는 꼭 목마른 짐승마냥 숨을 헐떡이며 계셨습니다.

が、その中でたつた一人、御縁の上の大殿様だけは、まるで別人かと思われるほど、御顔の色も青ざめて、口元に泡を御ためになりながら、紫の指貫の膝を両手にしつかり御つかみになつて、丁度喉の乾いた獣のやうに喘ぎつづけていらつしやいました。 (全集2巻:222-223)

불길 속에서 수레와 그 속에 있는 요시히데의 딸을 바라보면서 요시히데는 ‘사지왕의 분노와도 닮은 묘한 위엄’ ‘원광처럼 걸려있는 불가사의한 위엄’ ‘아름한 환희의 기분에 차 마치

12) 笠井秋生(1994)『芥川龍之介』清水書院, p.131

13) 에비이 에이지(海老井英次)는 ‘사랑스런 딸이 죽는다고 말하기 보다는, 역시 좀 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이 희생된다는 모습으로, 요시히데가 예술가로서 고뇌의 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海老井英次, 『芥川龍之介論攷』, 桜楓社, 1988, p.111)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나카무라 토모(中村友)는 ‘딸은 요시히데 내부에서 예술가로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초월해야 할 대상으로서 자신의상징이다(中村友『『地獄変』-対立の二重構造を読む』(関口安義編(1992)『アプローチ芥川龍之介』明治書院, p.57)라고 언급하고 있다.

개안의 부처님'과 같은 표정을 짓는데 반해서, 영주는 '새파랗게 질려서 입언저리에 거품을 물며' '꼭 목마른 짐승마냥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것은 불을 태우기 전의 요시히데의 두려움과 슬픔과 놀란 표정 그리고 영주의 간간히 음험하게 웃었던 표정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시히데와 영주의 표정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불 속에서 타 죽어가는 요시히데의 딸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연기에 숨이 막혀 위로 치켜든 그 얼굴의 창백함, 불길을 털어내고자 흐트러진 긴 머리칼 그리고는 또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변해버린 연분홍색 당의의 아름다움'에서 요시히데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영주는 파괴의 '처참함'을 보았던 것이다. 다카다 미호(高田瑞穂)가 '자신의 작품을 완결시킬 때 예술가는 <순간적>이며, 또한 <영원>하다. 그는 동시에 <순간적>이기도 하며 <영원>하기도 하며, 동시에 자신이 이와 같은 모순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sup>14)</sup>와 같이, 요시히데의 예술에 있어서 파괴는 그로테스크한 예술적 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영주에게 있어서는 예술적 미의 완성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과 성 안 사람들이 지키고 주장하던 기존의 예술미를 포함한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파괴되어 사라지고, 다만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질서만이 앞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 날 이후로 그 남자를 비방하는 자는 적어도 이 성 안에서만은 거의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그 병풍을 보는 자는 아무리 평소 요시히데를 곱게 보지 않았더라도 묘하게 엄숙한 감정에 사로잡혀 열열지옥의 대고난을 생생하게 맛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었을 때에는 요시히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それ以來あの男を悪く云ふものは、少なくとも御邸の中だけは、殆ど一人もいなくなりました。誰でもその屏風を見るものは、如何に日頃良秀を憎く思っているにせよ、不思議に厳かな心もちに打たれて、炎熱地獄の大苦難を如実に感じるからでもございませうか。しかしさうなつた時分には、良秀はもうこの世に無い人の数にはいつて居りました。(全集2巻:224)

이와 같이 요시히데와 영주의 대결은 분명히 승부가 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록 요시히데가 지옥변을 완성하여, 그 예술적 미의 완성이 일상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갔지만, 요시히데 또한 그가 남긴 지옥변만이 예술적 미로서 남아 있을 뿐, 그 새로운 일상세계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마도 요시히데가 딸로 인해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인간의 보편적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진 이상, 성 안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14) 高田瑞穂(1975)『芥川の美的ニヒリズム』『芥川龍之介論考』有精堂, p.34

## 5. 결론

이상과 같이, 『지옥변』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미(美)를 영주와 화가인 요시히데의 대결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결국 작품에서 말한 예술적인 미는 아쿠타가와가 자신의 생을 마감한 해인 1927년 『갓과(河童)』에서 시인 톡(トック)이 말한 ‘예술은 어떠한 것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따라서 예술가인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악을 초월한 초인이 지 않으면 안 된다.’(『갓과(河童)』全集8卷: 319)고 하는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예술적 미가 지금까지 ‘진·선·미’와 함께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진이나 선에서 분리되어 조화와 균형이 아닌 혼돈과 무질서 속의 기괴함이나 부자연스러움에서 파생된 순간적 미를 예술적 완성으로 추구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요시히데는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인간성을 대표하는 딸마저 포기함으로써 그 궁극적 예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 세계에서 상상하는 고정되고 확정된 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린 비인간적, 비사회적인 성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로테스크한 미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요시히데가 그리고자 한 아름다운 예술, 그로테스크한 미야말로 항상 파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초월적 존재, 혹은 보통 사람들의 우위에 접하는 가미와자(神業)일지도 모른다.

### 【參考文獻】

〈텍스트〉

『芥川龍之介全集第2卷』(1977) 岩波書店(全12卷)

〈단행본〉

石割透(1992)『<芥川>とよびれた藝術家 - 中期作品の世界 -』有精堂

海老井英次(1988)『芥川龍之介論攷』桜楓社

笠井秋生(1994)『芥川龍之介』清水書院

菊地弘(1982)『芥川龍之介 - 意識と方法 -』明治書院

関口安義 編(1992)『アプローチ 芥川龍之介』明治書院

高田瑞穂(1975)『芥川の美的ニヒリズム』『芥川龍之介論考』有精堂

中島隆之 編(1975) 正宗白鳥『芸芸読本 芥川龍之介』河出書房

三好行雄(1962.8)『国語と国文学』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吉田精一(1942)『芥川龍之介』三省堂

吉村稔, 中谷克己 編(1977)『芥川文芸の世界』明治書院

---

논문투고일 : 2013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0일

---

〈要旨〉

『지옥변』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美

- 영주와 화가의 대결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地獄變』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미(美)를 화가인 요시히데와 영주의 대결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요시히데의 예술적인 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쿠타가와가 1927년에 발표한 작품, 『갓파』에서 시인 토크가 말한 '예술은 어떠한 것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따라서 예술가인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악을 초월한 초인이자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예술적인 미가 지금까지 '진·선·미'와 함께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진이나 선에서 분리되어 조화와 균형이 아닌 혼돈과 무질서 속의 기괴함이나 부자연스러움에서 파생된 순간적 미를 예술적 완성으로 추구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일상 세계에서 상상하는 미가 아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린 비인간적, 비사회적인 성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로테스크한 미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요시히데가 추구한 아름다운 예술, 그로테스크한 미야말로 항상 파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초월적 존재, 혹은 보통 사람들의 우위에 접하는 가미와자(神業)일지도 모른다.

The Study on the Grotesque Beauty in *Jigokuhen*

- Focusing on Confrontation between Yosihide and lord -

This paper is to study the grotesque beauty in *Jigokuhen* through the process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Yosihide, the painter, and the lord. The artistic beauty of Yosihide is deeply related with the comment of Tok, a poet, in the *Kappa* by Akutawaga in 1927. Tok, in this novel, said that "Nothing can control art. Art for art's sake. So artists must be Kappa (Superman) that transcend Good and Evil above all". His saying suggested that the artistic beauty that has been regarded as the human true values as well as the notion of Truth, Good, and Beauty has changed into pursuing the momentary beauty, as the artistic perfection, which was derived from the grotesque and the unnaturalness in chaos and disorder, not from the balance and the harmony in Truth and Good. This grotesque beauty is beyond ordinary world. This can be obtained from the not-human and unsocial nature while discarding the all human thing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rotesque beauty that Yosihide had pursued as one of beautiful arts might be the transcendental existence which created the newness from the destruction and the divine existence which had the superiority over the ordinary people.